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비전(Vision)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

교육목표(Goals)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임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자기계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27대 이화의대 학장의 두번째 편지
- 2023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
- 2023 멘토-멘티의 날
- 2학기 ESAC 특강

05 학생소식

- 2023 화이트코트세레머니
- 의대인의 축제-행림제
- 동아리 소식
- 예방의학교실 박현진박사과정생 질병관리청장우수원고수상

06 연구소식

- 의과대학 연구부, 혁신적 연구과제 및 특허 멘토링 서비스 시작
- '학생연구관리위원회' 운영
- 이화의대지 EMJ (The Ewha Medical Journal)
- 의과학연구소장 인영호교수 인터뷰

08 특집기사

- Global Ewha Medicine
- Ewha Medical Care (EMC), 우즈베키스탄 파견
- Collaboration Symposium in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 Special lecture: Stanford University Prof. Michele Barry
- Invited Lecture: Harvard University Prof. Martin Hemberg

10 기획기사

- 청년여의사 '문학'을 읽다

12 동문소식

- 이화의대동창회 "섬김과 나눔은 변하지 않는 이화의 브랜드 파워"
- 안정신 교수, 대한중앙외과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 전해진 교수, 일차의료 학술상 수상
- 백령도 산부인과에 나타난 구세주

13 교수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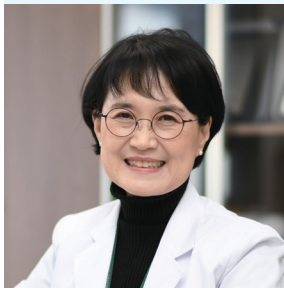
- 퇴임교원 인터뷰 백희경, 이홍수교수
- 신임교원 인터뷰 송석원교수
- 태정현 교수 연구팀 '유럽소화기기능성운동학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 문혜성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상 수상
- 한경은 교수 '태준 최다피인용 KJO 논문 공로상' 수상
- 유경하 의무부총장 '동아병원경영대상' 수상자 선정
- 송태진 교수 우수연구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김이준 교수 연구팀 난치성 욕창암 치료 실마리 찾아

18 신입,퇴임,보직 교수명단

19 의과대학 금감안내

대학소식

27대 이화의대 학장의 두번째 편지 “Global Ewha Medicine”



사랑하는 이화의대 가족 여러분께,
갑진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3년 2학기부터 이화의대 학장으로 임직을 맡아 벌써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글로벌 이화 의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교류 확대를 통해 글로벌 최고 여자 의과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도쿄대 의학대학 학장단과의 방문 교류를 통해 양교의 의학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스탠포드대 Michele Barry 교수의 초청 강연을 개최하여 글로벌 의료체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앞으로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유수의 대학들과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둘째, 의과대학, 동창회, 학생들과의 소통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과 학생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ESAC) 강좌, 화이트코트세레머니, 행림제 지원 등 다양한 학생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속감을 강화했습니다.
- 제2회 리서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연구의 활성화 터전을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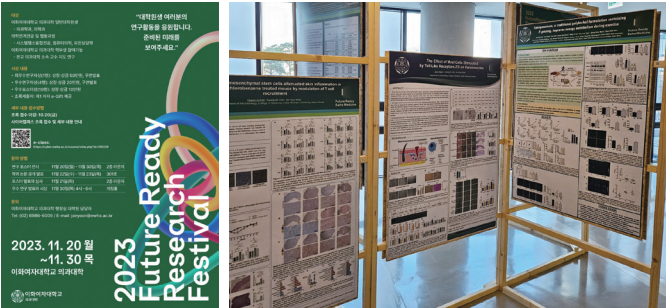
셋째,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 및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내 지원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입 교원에게 맞춤형 연구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부 연구과제 신청 및 특허 신청을 지원합니다.
- 학술저널인 이화의대지(EMJ)를 최고 의학저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학생연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하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 연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논문 발표 성과가 큰 폭으로 향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화의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화의대가 글로벌 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역할 수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이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장 **하은희** 드림

제 2회 2023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



‘2023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의과대학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응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 의학과 일반대학원생, 의학 연계전공 및 협동과정(시스템헬스융합전공, 컴퓨터의학협동과정, 유전상담학협동과정)이고 의과대학 학부생도 지원가능하다. 이번 Research Festival에는 42명의 지원자가 다양한 주제로 연구활동을 제출하였으며, 2023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의과대학 2층라운지에 연구 포스터가 전시되었다. 11월 21일에는 2층 라운지에서 각 지원자들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신정아, 정희경희, 홍소희, 류정화, 최윤희 교수님의 심사를 통해 5명이 우수 연구상 후보에 올랐다. 후보에 오른 학생들은 11월 30일 4시 의과대학 계림홀에서 우수연구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의과대학 대학원 의과학과 천인영, 이호빈, 이효정, 김미진, 이시은 학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자신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으며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학생들의 발표 후에는 기생충학교실의 양현중 교수님께서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날 최종 심사는 하은희 의과대학장, 우소연 연구부부장, 양현중 연구부부장님이 진행하였으며, 이어진 시상식을 통해 ‘The hyaluronan network restructured by ZEB1 establishes a pro-metastatic microenvironment in lung adenocarcinoma’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분자과학교실 박사과정 이시은 학생(지도교수 안영호)이 최우수연구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인영, 이호빈, 이효정, 김미진 4명의 학생이 우수연구상을, 박선미, 권지윤, 김현주, 황현, 전승희, 김도연, 최영민, 염윤지, 박재민, 박지혜 10명의 학생이 우수 연구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끝으로 하은희 의과대학학장은 축사를 통해 의과대학 대학원 학생들이 의과대학의 미래임을 전하고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장려하면서, “활발한 연구활동과 연구결과를 통해 받은 상을 본인 커리어에 있어

서 자부심이 되기를 소망한다.” 고 말했다. 작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2회를 맞은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의예과 2학년 홍서영 학생기자〉

2023년도 이화의대 ‘멘토-멘티의 날’ 행사 개최



2023년도 이화의대 ‘멘토-멘티의 날’ 행사가 10월 6일(금) 오후 6시 30분에 의관 301호에서 개최되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 박미혜 학생부학장, 우소연 교무부부장, 양현중 연구부부장 및 주요 보직 교수와 11명의 멘토, 24명의 멘티가 참석하여 향후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며 멘토링 행사를 시작했다. 위촉된 멘토는 조종남(조윤희산부인과), 윤석원(성완산부인과), 전희숙(전희숙 산부인과), 임선영(임선영산부인과), 피상순(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 조지윤(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소화기내과), 김은성(가야산부인과), 하현성(우리 가병원), 윤수진(가정의학/예방의학전문의), 배기선(삼양산과), 심민영(국립 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동문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수인 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하은희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생들과 멘토 선배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축복하며, 학생들이 어떻게 꿈을 키우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오늘 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학생들이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 라는 격려의 말 전했다. 이어 임선영 동창회장은 “지금도 저의 멘토 선배님들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멘토로 서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하며, 이화의대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멘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멘토와 멘티들이 서로 소개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의대에서 최초로 16대 이대 총동창회장을 맡았던 조종남 멘토, 19대 의대 동창회장 및 한국여의사회회장을 역임한 윤석원 멘토, 의사로의 삶을 수필로서 풀어내며 문학가로 활약하는 전희숙 멘토, 국무총리상 수상 및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을 역임한 24대 의대 동창회장 임선영 멘토, 한국정신분석학회 부회장 및 경기도여자의사회회장을 역임한 피상순 멘토, 송파구/마포구 보건소장을 역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하현성 멘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장으로서 대단위적으로 정신건강케어에 힘쓰시는 심민영 멘토 등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선배님들이 경험과 덕담을 전하며 후배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을 전했다. 뒤이어 심민영 멘토의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재난 상황 발생 시의 트라우마란 무엇인지, 최근 이슈가 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정신적, 정책적 접근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의료인으로서 보호자, 환자

와의 공감대 형성 외에도 동료 혹은 공동체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신뢰의 모습과,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예비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인 신뢰, 공감, 존중에 대해 상호 창출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하였다. 이에 멘토-멘티의 날 행사에 참석한 황수민(의학과2) 학생은 “오늘은 모의 환자를 대면으로 하는 실습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 앞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까” 라는 고민들이 생겼었는데 마침 같은 날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되라는 하은희 학장님의 말씀과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를 맡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가져야 할 의사상을 떠올리고 다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은우(의학과2) 학생은 “그동안 공부와 시험에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오늘 선배님들을 뵈고 말씀을 나누며 시야가 넓어지고, 제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후배들이 많이 참석하여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였다. 끝으로, 기념사진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후배 간의 교류의 장을 다짐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꿈을 향한 노력을 응원하며 ‘멘토 멘티의 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의학과 3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2023 성탄의 집 점등식

어둠속에서 해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 이사야 9:1a, 2



12월 6일(수) 마곡의대 이화성탄의 집 점등식이 진행되었다. ‘이화 성탄의 집’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형물로 신촌 캠퍼스에 이어 마곡캠퍼스를 환히 밝혔다.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시기인 추운 겨울, 이화동산에 오고가는 모두가 이 빛을 보며, 길을 찾고, 온기를 느끼고,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하은희 학장님의 인도로 진행된 점등식은 의과대학 운영위원 교수 및 직원 이 한자리에 모여 성격봉독과 공동기도, 찬송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학과 3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2023학년도 2학기 ESAC 특강 개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최재천 교수 초청
생태적 전환과 호모 심비우스 – Ecological turn and Homo symbious



2023학년도 2학기 이삭 강좌가 계림홀에서 10월 23일에 ‘생태적 전환과 호모 심비우스 – ECOlogical turn and Homo symbious’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약 150명의 의과대학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과 대학원생, 하은희 의과대학장, 편육범 이화의 학교육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강좌의 연사인 최재천 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생태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로, 서울대학교

교수, 국립생태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생명다양성재단(Biodiversity Foundation) 대표이며,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로 ‘최재천의 아마존’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기후 변화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생물의 다양성과 연결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후 및 생물 다양성의 위기, 생태백신(Eco-vaccine),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최재천 교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술적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사라질 생물의 다양성과 자연-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최근 전세계적인 위기였던 COVID-19와 같은 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라며 “현대 사회는 생물의 다양성을 거스르고 획일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강의를 끝마치며 인류에게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전환은 생태적 전환임을 강조하고, “다른 생명과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강의를 끝마쳤다



ESAC은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이화의대에서는 매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외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해 의료계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하여 ESAC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의학과 3학년 박서영 학생기자〉

학생소식



2023학년도 의과대학 화이트코트세레머니
(White Coat Ceremony)



2023년 10월 13일(금) 17시 마곡의학과관 계림홀에서 2023학년도 화이트코트세레머니(White Coat Ceremony)가 개최되었다. 화이트코트세레머니는 2024년에 병원으로 첫 걸음을 떼어 환자들 앞에 서게 될 의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혀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비의사로서 갖춰야 할 사명감, 책임감, 생명존중의 정신을 다짐하는 행사로서 2006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박미혜 학생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내외·빈들이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가운데 안선희 교목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은희 의과대학장의 환영사, 유경하 이화의의료원장의 축사, 임선영 동창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안선희 교목은 오래 꿈꾸어 왔던 화이트 코트를 입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날, 이화의 의학도들이 부와 명예가 아닌 보구녀관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감의 마음과 어진 인품이 더해져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생명을 지키는 선한 의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도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은 의학적 지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양한 경험으로 실력을 쌓는 ‘전문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명감’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의 착의식이 진행되었고, 하은희 의과대학장, 임선영 동창회장, 유경하 이화의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총 11명의 교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 주었다. 착의 후 이재은 학생대표의 학생의사 윤리선언문 선서가 있었다. 학생들은 “나는 이제 예비의사인 의학도로서 무절제한 생활을 자제하고 항상 단정한 복장과 순수한 마음으로 직업의 성스러운 전통 아래에서 나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선서와 함께 예비의사로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 다음으로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 동영상과 부모님의 편지, 교수님들의 축하 영상을 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였고, 박영미 교수와 의학과 2학년 김규리 학생의 피아노 연주와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의 축하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이날 화이트코트를 수여받은 의학과 2학년 학생 75명은 다가오는 2024년도부터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에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들을 마주하며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실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학생 의사들을 응원한다.

〈의학과 3학년 박서영 학생기자〉

이화의대인의 축제 - 행림제
겨울 감성을 적시는 다채로운 공연의 향연



2023년 10월 12일(목) 마곡의학과관 계림홀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축제인 행림제가 개최되었다. 밴드동아리 ‘인프라레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댄스동아리 ‘8초’의 공연, 그리고 교향악단 ‘EMO’와 합창동아리 ‘코엠’의 공연이 이어졌다. 각 동아리별 공연 이외에도 EMO와 인프라레드가 함께 꾸민 연합 공연과 의학과 2학년 학생 11명이 준비한 댄스 공연까지 다채롭게 무대가 꾸며졌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라는 곡으로 장기자랑을 준비한 11명의 조원 중 한 명인 이혜지 학생(의학과 2)은 “곡 이름처럼 파이팅이라는 기운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와중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의학과 2학년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 모두들 화이팅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인프라레드 신가연 학생(의학과 2)은 “의예과 시절에 공연을 하지 못한 코로나 학번이라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행림제 행사에 계림홀이라는 큰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 감사하고 좋은 기회였다. 밴드만의 매력을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 과정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 이외에도 의과대학과 병원을 잇는 통로에서는 그림동아리 ‘그리민’의 멋진 전시와 소중한 추억들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부스, 마곡의학과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구석구석 퀴즈, 영화 상영회 등이 진행되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업과 시험을 벗어나서 오늘날만큼 마음껏 끼를 부리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화여대의 미래인 여러분이 글로벌 시대 속 큰 꿈을 갖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의학과 3학년 최유빈 학생기자〉

동아리 소식



의과대학 수공예 동아리 H&M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2023년 12월 20일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 가제수건, 인형 네임택, 크리스마스 카드 300세트를 제작하여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H&M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쿠키, 모루인형, 이화의대 굿즈를 제작한 후 판매한 수익금으로 진행되었다. H&M 기장 객나령 학생(의학과 2학년)은 “따뜻한 관심 속에 생각보다 많은 수익금이 모여 기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기부를 기획하고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과정까지 모두 부원들과 직접 진행했기에 더욱 뜻깊었다. 한 학기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해준 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덕분에 이번 겨울이 조금 더 포근해진 듯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학생부〉

예방의학교실 박현진 박사과정생「주간 건강과 질병」
질병관리청장상 우수원고 수상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은 최근 발간 15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2023.12.13.)을 개최했다. 이 학술지는 지난 15년 동안 약 2,500편의 원고를 통해 질병 관리 정책, 건강 증진 사업,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하며 건강 정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속 대학원생 박현진 박사과정생(시스템헬스융합전공)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심층조사(식생활,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영역)” 원고가 우수 원고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였다. BK21 시스템헬스융합전공의 박현진 학생은 “이 연구는 박혜숙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원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청소년 건강행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더 나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소식

의과대학 연구부, 혁신적 연구과제 및 특허 멘토링 서비스 시작



▲연구 멘토링 (신임교원 김이준 교수, 양현중 연구부학장) 이레나 교수, 소화기내과 최아름 교수)

최근 의과대학 연구부에서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다. 신임 교원과의 1대1 미팅을 통해 맞춤형 연구 솔루션을 제안하고, 정부 연구과제 신청, 특허 신청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에 적합한 과제를 찾아 선정률을 높이거나 사업화에 유리한 특허 항목을 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교원과의 1대1 멘토링 세션을 통해, 신청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부학장 양현중 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과 교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이 멘토링 서비스는 2023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관심 있는 학생 및 교원은 의과학연구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과대학 연구부〉

의과대학 '학생연구관리위원회' 운영

의과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Addies's 모형 기반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2024교과과정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인 창의연구 과정 준비를 위해 의학교육센터(EMEC, 센터장 김승정 교수)의 주도하에 신설된 이 과정은 의예과 1학년년부터 의학연구에 노출하여 의학과 2학년에 마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의과대학교수들의 다양한 개별 연구분야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9년도에 마곡지구로 이전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이화의료원 뿐만 아니라 주변에 45개가 넘는 바이오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 산학병연 융합 의학을 선도할 연구 인재 양성이라는 의과대학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과정을 요약하면, 의과대학 입학 후, 의과학의 현재와 미래(의예과1, 박영미 교수), 창의연구 기초(의예과, 최윤희 교수), 창의연구 도전(의예과2, 공경애 교수), 창의연구 프로젝트(의학과1, 연구부학장), 창의연구 심화(의학과2, 연구부학장) 등의 과정들을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다. 의과대학 연구부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창의연구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연구관리위원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학생의 각 교수연구실 배치, 지도교수 역할 및 교과목 평가 등 창의연구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

〈의과대학 연구부〉

이화의대지 EMJ(The Ewha Medical Journal)



이화의대지(The Ewha Medical Journal)는 1978년 창간 이후 현재까지 46년간 총 46권 158호를 발간하며 의학 및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리뷰, 케이스 스터디, 임상 보고 등 다양한 과학적 기사와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문의학학술지이다. 이화의대지는 일반학술지와는 달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검증된 고품질의 의학 연구의 결과물을 선별하며, 연구 윤리를 존중하고 의학정보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화의대지는 그동안 쌓아온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지로서 한발 더 도약을 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 홈페이지와 학술지 로고를 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변경하고 2023년에는 의학학술지 편집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허선교수님을 새로운 편집위원장으로 초빙하여 변화하는 의료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아우르고 특정 토픽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는 특별호를 발간하는 등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KCI 등재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PubMed, Scopus등의 국제 의학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의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학생편집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이화의대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학생에게 저널 편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화의대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의과학연구소장 안영호 교수 인터뷰



오늘날 과학과 의학에 있어 엄청난 속도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융합에 기반한 Health Technology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는 기초 및 임상연구를 위한 의과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이화글로벌보건연구센터와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의과학연구소의 목표와 연구 방향, 그리고 예비 의사과학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2023년 8월 의과학연구소장으로 부임한 안영호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의과학연구소의 현재 목표와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의과학연구소는 의과대학 내에서 교원 및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유일한 연구소로, 연구 서비스, 동물 실험, 실험 공간 및 장비, 연구 행정 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학연구소는 다양한 기초-중개-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원 및 마곡 M-Valley 입주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를 사업화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 연구센터 설립과 업무 협약 체결 등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현재 이화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의과학연구소는 염증 및 암 미세환경 조절 연구센터, 신경염증 뇌질환 연구센터, 이화편도 줄기세포연구센터,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세포치료임상 연구센터, 이화-SCL 환경 건강 연구센터 등 총 5개의 전문 연구 분야를 가진 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랜 노하우와 학문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암, 염증, 뇌질환 등 난치성 질환 연구와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임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Q 이화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이화글로벌보건연구센터와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가 곧 개설될 예정인데, 설립 계기는 무엇이며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화글로벌보건연구센터(Ewha Institute for Global Health; 센터장: 양현중, 기생충학교실)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염병 발생이나 소위열대질환 등의 글로벌 건강 이슈에 대한 혁신,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여 국제적 위기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보건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기반 가이드를 마련하는 거점센터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글로벌 보건 동향으로는 의료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 의과학연구소에서는 의료인공지능센터(Ewha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센터장: 신상훈, 순환기내과)를 설립하여 의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병리학적 패턴 인식, 유전체 및 의료영상 분석 등 모든 의료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의학-공학 브릿지 연구를 활성화하고 교원 및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Q 의사과학자 양성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화의대 학생들이 예비 의사과학자로서 갖추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과학자로서, 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거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25년 동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37%가 의사과학자이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대표 과학책임자의 70%가 의사과학자임을 감안하면 세계 의학 분야에서 의사과학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매년 1천 700명 정도의 의사과학자가 양성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명 정도만이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현실입니다. 선진국과의 의학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의 양성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는 학부 시절부터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실 연구 경험을 쌓아 자신의 흥미 분야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Q 의과대학에 '랩 로테이션', '의과학개별연구', '의과학심화연구' 등 선택과정으로 학생연구참여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A 의예과, 의학과 학부생들에게 직접 기초 및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연구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연구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 장려를 위해서 의과대학과 의과학연구소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 연구 참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참여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연구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의과학연구소 내 기기와 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향후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나 그룹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인 교류를 촉진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되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과 3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특집기사 | Global Ewha Medicine

Ewha Medical Care (EMC), 우즈베키스탄 파견



이화해외의료봉사단(EMC, Ewha Medical Care)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의료봉사를 4년 만에 시작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2월 4일(일)부터 11일(일)까지 7박 8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실다리아 지역에서 일반검진과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봉사단원으로는 이희성 외과학교실 교수를 단장으로 이화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희, 문은지 교수, 내과 이한아 교수를 비롯해 전공의, 간호사, 약사 및 본교 의대, 약대, 간호대, 정치외교학, 심리학과 재학생과 씨젠의료재단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의과대학에서는 1월 17(수) 마곡의학과관 301호에서 '2023 동계 이화해외봉사단(EMC)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하은희 의과대학장, 유경하 의료원장, 임선영 의대 동창회장, 김한수 EMC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먼 길을 떠나는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발대식은 이번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작은 것에 힘쓰며, 삶에 진전한 기쁨을 느끼고, 사소한 것에 충실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교목실장의 기도과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봉사단장 이희성 교수가 8일간의 봉사 일정과 제약회사를 포함한 23곳의 후원 현황 등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4년 만에 진행되는 50번째 해외의료봉사활동에 뜻깊음을 표하며, 봉사단원들과 이화의료원, 이화익대 동창회에 감사를 전했다. 봉사단원들에게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도 봉사를 가겠다는 처음 마음 그대로 열의, 의지, 동지애를 갖고 도전들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 며, “남을 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단원들의 손길이 환자들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가능성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넘어서 인간적인 연결과 가치를 느끼고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1989년 의대 시절 동기였던 사꾸라 라즈반다리의 모국인 네팔로 처음 해외의료봉사를 가게 된 것을 시작으로 EMC가 50번째 봉사를 가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며, “봉사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동창회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인공지능이 신의 영역을 넘보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화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다.” 라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육체적 피로를 다 덮고도 남을 영적인 희열을 선물로 받음 이화의료봉사단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 는 격려의 말과 함께, 지난 12월 이화의대동창회에서 EMC지원을 위해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과 동창회장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봉사단원인 정태리 학생(의학과 1)은 “겸손과 섬김, 열정의 마음

으로 안전하게 다녀오겠다. 단원들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2월 4일부터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봉사단원들의 소개와 EMC위원장 김한수 교수의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발대식을 마쳤다.

한편,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활동과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다. 2017년 이후에는 매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하계와 동계로 2차례씩 의료봉사 활동을 실행하고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의료원, 이화의대동창회, 총동창회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Collaboration Symposium in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between Ewha Womans University and Tokyo University



2023년 11월 17일(금)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간의 공동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Masaomi Nangaku 의과대학장, Noboru Mizushima 부학장, Tomoyoshi Nozaki 부학장, Reiko Inagi 교수, Keiko Nanishi 교수가 방문하였으며,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하은희 의과대학장, 김관창 기획부장, 윤혜전 기획차장, 이정원 기획차장, 강덕희 교수, 정성철 교수, 김이준 교수 외에 많은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양교 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었다.

1부는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의 세부 전공별 주제 발표와 Q&A 시간을 가졌으며, Noboru Mizushima 교수는 'Organelle degradation by autophagy-dependent and independent pathways', Reiko Inagi 교수는 'Organelle Stress in Kidney Disease', Tomoyoshi Nozaki 교수는 'Overview of School of International Health and Drug Development against big three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2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세부 전공별 주제 발표와 Q&A 시간이 이어졌으며, 생화학교실 정성철 교수가 'Tonsil-derived stem cells and its application to neuromuscular regeneration', 환경의학교실 김이준 교수가 'Immunity as a human response

to the environment: Current epidemiologic and basic research in environmental medicine and immune-related diseases', 내과학교실 강덕희 교수가 'T-MSC as a novel tool to prevent peritoneal fibrosi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끝으로 진행된 3부에서는 Keiko Nanishi 교수와 편육범 의학교육센터장이 한국과 일본의 의학교육과 양교간의 교육 현황과 학제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두 대학은 의학 및 의과학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양교의 의학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Special lecture: Global Health 'A Career, A Center, A Gender Dream'

Stanford University : Prof. Michele Barry

2023년 11월 16일(목) 의과대학 계림홀에서 스탠포드 대학 Michele Barry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Michele Barry 교수는 의학전공으로 Primary Care and Population Health를

전문분야로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A Career, A Center, A Gender Dream”으로 글로벌 의료체계의 불평등(균등하지 못한 기회)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Stanford Center for Innovation in Global Health (CIGH, <https://globalhealth.stanford.edu/>)의 director로서 미래의 리더들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팀으로 모아 전세계의 의료 문제를 개선하려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CIGH센터에서는 학부생과 의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연구트랙에 참여가 가능하며, 의학과 관련된 과정 이외에도, CNN과 연계된 Journal School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리고 있음을 소개하며, 그 외에도 기후와 환경변화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Human and Planetary Health 이니셔티브에서는 거대도시에서의 건강문제, 거대산불, 미세먼지,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전문적인 논문의 내용을 평이한 말로 바꾸어 정치인들에게 설명하는 역할도 담당하고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여성의 삶이 고되었다면, 현재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재해가 나타날 경우 여성이 겪는 고통이 증가되는 gender-biased impact에 대해 소개했다. 국제적인 의료를 포함한 리더십을 담당하는 여성은 거의 없지만("manels"), 실제로 현장에서 간호와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70% 이상이 여성이고,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여성들은 “imposter syndrome(가면증후군)”과 “glass cliff”에 시달린다는 내용을 말했다. 강의 후 학생들은 이러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관심과 현장에서 여성의 차별에 대한 질문시간을 가졌다.

Therapy associated remodeling of pancreatic cancer revealed by single cell spatial transcriptomics and optimal transport analysis

Harvard University : Prof. Martin Hemberg



2023년 10월 10일(화) 의과대학 마곡의학과관 301호에서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초청된 연사인 하버드 의과대학 Martin Hemberg 교수는 면역학 전공으로, 전산유전체학 및 전사체학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암치료에 있어서 세포 고유의 특성과 종양 미세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치료 반응이 조절된다는 내용으로, 단일세포공간전사체학 및 최적수송분석법(optimal

transport analysis)을 이용한 췌장암에서의 치료에 의한 리모델링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Hemberg 교수 연구팀(<https://hemberg-lab.github.io>)은 인간 췌장암에서 특정 악성 아형 및 신보조 화학요법/방사선 요법과 관련된 다세포 이종의 리모델링과 세포 간 상호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고밀도 단일 세포 공간전사체학을 활용했다. 교수팀은 공간적 거리와 리간드-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 함수를 가진 최적 수송 모델인 공간 제약 최적 수송 상호작용 분석법(SCOTIA)을 개발했다. 그 결과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암 관련 섬유아세포와 악성 세포 사이의 리간드-수용체 상호작용에 현저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생체 외 종양 공동 배양 시스템을 포함한 직교 데이터 세트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 연구는 고밀도 단일 세포 공간전사체학을 이용한 종양 미세 환경의 분석을 통해 화학저항성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자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악성 종양, 질병 및 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개 공간 생물학 패러다임을 확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연에 참석한 의과대학 대학원생과 교원들은 활발한 질문들로 토의를 이어나갔으며, ‘연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유로운 면담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후 Hemberg 교수의 개별 연구 미팅 세션을 통해 단일세포전사체학 기반 연구에 대한 조언을 얻고 공동연구의 진행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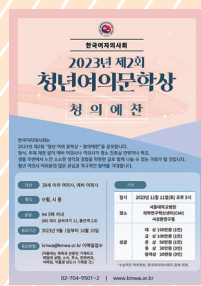


기획기사 | 청년여의사 '문학'을 입다



'문학'으로 뭉친 여의사들, 친구세대간 소통과 공감

제 2회 청년여의문학상~청의예찬 대상 수상자 최윤형 동문 인터뷰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주최한 제 2회 청년여의문학상~청의예찬에서 이대목동병원 응급학과 최윤형 동문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대목동병원에서 인턴, 응급학과 레지던트 수련 후 펠로우 과정을 밟고 있는 최윤형 동문을 만나 수상작의 주제 선정 계기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최윤형 선배님, 안녕하세요. 2023년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 청의예찬에 참가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A 축하 감사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님께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 참여해보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 주셨던 게 좋은 기회가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선배님의 수필 제목이 '의사가 직업인 환자'라고 알고 있는데, 수필 주제 선정 계기와 수필의 내용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A 글을 쓰기에 앞서 환자와 의사의 교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응급의학과는 타과에 비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행에 마주한 환자를 유난히 많이 보는 과이고 삶이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수련을 막 시작했을 때는 환자를 마주하며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놓여있어서 그것을 소재로 글을 썼습니다. 수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제가 응급실 일을 벌써 6년째 하고 있는데 레지던트 3년차에 PSVT(발작성 상심실성 빈맥)가 생겨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간단하게 배우고 경증이라고 생각했던 질병이 막상 환자의 입장에서 겪어보니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사의 입장에서만 가법게 생각했던 일들이 환자에게는 매우 큰 일이었던 것에 대해 제가 느낀 경험을 쓴 수필입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의 경우 대부분 완치되므로 의사 입장에서만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도 있는 일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만 젊은 나이에 암을 진단받은 상황에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보니 의료진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Q 저도 평소 실습 중에 느낀 생각을 글로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막상 글로 적으려고하니 막막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배님께서 평소에도 자주 환자분들이나 의료현장에 대해 느끼신 바를 글로 작성하시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A 네, 저는 평소에도 글로 자주 적는 편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오기 전 하고 싶었던 선택지에 글쓰기가 있었기 때문에 글쓰기 교수님들께 제가 쓴 글을 보여드리고 잡지사쪽에 컨택도 하였지만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혼자 글을 쓰고 읽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앞에 놓인 의학전문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고, 수련을 마친 후에는 앞의 과업들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글쓰기에 욕심이 더 생겼고, 틈틈이 글을 계속 쓰고 읽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전공의 1, 2년차 때는 그 날 보고 느꼈던 것들, 떠올랐던 생각들, 마음을 괴롭혀 했던 것들을 글로 쓰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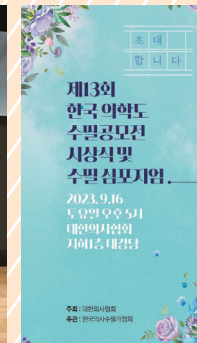
Q 제 2회 청년여의문학상 동상 수상자 중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청년여의문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후배 학생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A 네, 의학과 김송학생이 청년여의문학상 동상을 수상하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의학과와 경우 책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부와 책 읽고 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문학적인 일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훌륭하고, 결국에는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 투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전공의 때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 제출하였을 때 지금 봐도 미숙하고 억지로 쥐어짜서 쓴 글이었지만, 초고를 쓰고 고치는 침묵을 반복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침묵을 거듭하여 완성도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표현의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의학과 3학년 박서영 학생기자〉



제 13회 한국 의학회 수필 공모전 금상 수상자 의학과 3학년 김민영 학생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주최, 한국 의사수필가협회가 주관한 제13회 한국 의학회 수필 공모전에서 의학과 3학년 김민영 학생이 '누구에게나 있을 창도름'이라는 제목의 수필로 금상 수상하였다. 화자는 '창도름'이라는 음식에서 켄데기와 알맹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포착하여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하고 못 인간관계로 나아가간다. 음식을 잘 끓여 '배지근한' 맛을 내듯 사람 간의 진솔한 대화와 교감도 깊고 따뜻한 맛이 우러난다. 이처럼 음식을 소재로 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철학, 임상실습 을 통해 환자를 마주하며 느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에 대한 생각을 매끄럽게 펼쳐내었다.

Q 김민영 학생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의학과 1학년이었던, 2021년에도 한국 의학회 수필 공모전에 '소리 없는 가르침'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시고 수상하셨는데, 이번 글을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의학과 3학년 김민영입니다. 우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학년 때는 첫 해부학실습에서 부끄러웠던 경험을 반성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아직 의학을 이해하려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이지만 올해는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편으로 이번 글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꼭 완성시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던 알맹이였어서 애정이 컸습니다. 당신들께서 주시는 경험들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한다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이자 위로의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Q 수필 <누구에게나 있을 창도름>에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아버지를 위로할 수 없었던 딸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들의 연약함을 묵도하는 의료 현장에서 그 마음을 유지하기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실습을 돌면서 켄데기나 알맹이를 잃어 무너진 이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었던 민영 학생만의 마음가짐이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사실은 저의 마음가짐보다는 환자분들과 교수님들의 말씀에서 저절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에 짧막하게 담은 것들 외에도 병원 안에는 아픔들이 무수합니다. 교수님 회진을 따라 돌거나 문진을 가보면 환자번호 8자리 케이스에 불과했던 것이 수십 년의 삶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없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퇴원 후 경과 관찰 방법을 환자 상황에 맞게 고려하고 계획하시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아픔들을 공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시험, 발표 준비, 환자 파악 등등

로 밤을 새면 생각의 끈을 놓게 되다가도 다시금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Q 평소에 글감을 떠올리시거나 글을 쓰실 때, 본인만의 글쓰기 루틴이나 방식이 있는지와 민영 학생에게 글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저에게 울림을 준다면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나중에 보면 앞뒤가 안 맞거나 너무 오글거려서 지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승전결로 만들어내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감을 골라서 이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필로 씁니다. 지금 메모장에는 '2mm가 만든 38cm'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의 인터뷰 중에 수없이 연습해서 2mm 차이로 화살을 쏘면 과녁에는 38cm 차이로 꽃한다는 말을 읽었는데, 그 미세한 각도 조절을 위해 흘렸을 땀을 생각하며 써두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도 그냥 써놓고 봅니다.

상투적일지 몰라도 글은 저에게 가장 확실한 자기 표현의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글을 좀 더 재밌게 쓰고 싶어서 표현에 대한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글 쓰는 데에 절대적인 시간이 적다는 것을 느껴서 이번 방향 때 조금 더 연습해 볼 생각입니다.

〈의학과 3학년 최유빈 학생기자〉



언론에 비친 동문소식



이화여대동창회 “섬김과 나눔은 변하지 않는 이화의 브랜드파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전원동창회(회장 임선영)은 2023년 12월 2일 이화여자대학 ECC 이삼봉홀에서 송년회 및 EMC(이화해외의료봉사단)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마련했다. 이날 이화여대 동문 20여명과 대한의사회회 이필수 회장, 한국어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유경하 이대 의무부총장, 하은희 이화여대 학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선영 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초일류 의대가 되고 최고의 의료원이 되도록 최상의 학생들을 유치하고 연구하는 대학, 훌륭한 교육병원으로서 최상의 자질을 갖추도록 우리 동문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왔으며, 동창회가 그 중심에서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동문님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행동하는 지성’의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후배들을 위해 의대발전기금, 의대연구기금, 의대장학기금을 비롯해서 동창회에서 지원하는 교수학술 연구비도 흔쾌히 후원해 주셨으며, 동문님들의 이 모든 후원이 이화 의대 공동체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외에도 이화여대 동창회에서는 청소년 쉼터 후원 사업으로 20곳의 쉼터 청소년들에게 진료 봉사 및 독감 접종을 지원하였으며, 성인이되면 관악돌꽃청 소년세상자립지원단 시설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하는 자립청소년을 위한 후원 등 보구녀관에서 시작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지속해서 실천해오고 있다.

〈후생신보〉

이대목동병원 안정신 교수, 대한중양외과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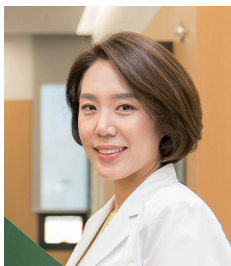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안정신 교수(외과)가 2023년 9월 23일 열린 대한중양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유방암에서 지방간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를 발표해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의 지방간에 관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유방암의 예후에도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혈액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및 단백질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안정신 교수는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젊은 환자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유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구가 유방암 환자들의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정신 교수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유방암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유럽중양학회 주최 컨

퍼런스에서 해외 연구자에게 주는 트래블 그랜트(Travel Grant),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우수 연제상, 이화 목동 Young Doctor Award 등을 수상했다.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 전혜진교수, 가정의학회·한독 제 9회 일차의료 학술상 수상



가정의학회와 한독이 공동 제정한 제9회 일차의료학술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상은 가정의학 분야와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 의사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해마다 일차의료 관련 학술 및 연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의사에게 수여된다. 제9회 일차의료학술상은 연구부문 4명과 학술부문 1명으로 총 5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전혜진 교수는 학술부문을 수상하였다. 전혜진 교수는 기능성 도담췌 현미 섭취가 인체의 포도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최근 3년간 15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32개월 만에 문 연다’ 백령도 산부인과에 나타난 구세주 오혜숙 동문(24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 뿐입니다.”



오혜숙(24기) 동문은 2년 8개월간 비어있던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백령병원 산부인과 과장에 자원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200km나 떨어진 외딴 타지로 떠나는 것이지만, 오혜숙 동문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며 외려 씩씩스러워했다. “대단치 않다”는 오혜숙 동문의 말과 달리 백령도 주민들은 “산부인과 의료 공백기가 드디어 끝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백령병원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유일한 병원으로, 주민(5590명)과 군인, 군인 가족 등을 합쳐 1만여명이 사는 백령도의 의료를 책임지며, 산부인과는 2001년 개원 이후, 봉직의가 근무한 건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이 전부다. 나머지 기간은 취약지역 보건소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가 산부인과 진료를 봤다. 그나마 2021년 4월 근무하던 공보의가 근무지 변경을 신청해 백령도를 떠난 뒤엔 이마저도 끊겼다. 산부인다가 사실상 휴업 상태인 사이에 백령도에선 임신부 27명이 출산했다. 2022년 7월에는 닥터헬기를 타고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응급이송된 위기 산모도 있었다. 2001년 백령병원에서 산부인과 공보의로 일했던 의사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백령도 사정을 알렸는데, 우연히 소식을 접한 오혜숙 동문의 등장으로 32월에 걸친 구인난과 산부인과 공백이 간신히 풀렸다.

〈중앙일보〉

퇴임교원 인터뷰



백희정 교수 마취통증의학교실

간행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이사, 대한마취약리학회 홍보이사, 대한마취약리학회 국제협력이사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2024년 2월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백희정 교수와 퇴임소감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정든 교실을 떠나게 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4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전임의 및 임상강사로 3년, 그 이후 교수로서 23년 6개월을 마취통증의학교실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생 및 전공의 교육, 진료, 연구, 학내 봉사, 학회 활동 등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 한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싶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현재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교실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저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신 선후배 교수님들, 의원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오랜 기간 본교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셨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동안 보람찼던 경험이나 아쉬웠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전공의 시절까지 포함하여 40년간 수술받는 환자의 마취를 해왔는데, 매우 드문 증례인 open cardiac massage, 양수색전증, 지방색전증후군, 다발성손상으로 인한 심한 혈액응고병증 환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등등을 직간접으로 경험하였고, 이 중에서 마취로부터 각성 도중에 지방색전증후군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30대 남자 환자를 이대동대문병원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우며 recruitment maneuver와 기계환기요법으로 살려낸 것과 이대목동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중 급성호흡부전과 심정지가 발생한 다발성손상환자에서 heparin-free veno-venous ECMO 시행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17세 여자 환자를 소생시키고 입원 128일 만에 합병증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퇴원시켰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 있는 진료 경험이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학생들과의 만남이나 접촉이 제한적인 과이지만 매년 지도학생을 배정받아 지도학생들과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여 교수 및 의사로서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일 때 입학관리부장직과 자체평가총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학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보람찬 일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다만 통합과정 강의 중에 소량의 강의 시간과 1주일 정도의 짧은 임상실습으로 학생들과의 만남이 적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교수님의 마취통증의학과를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문분야인 뇌신경 마취의 구체적인 역할 또한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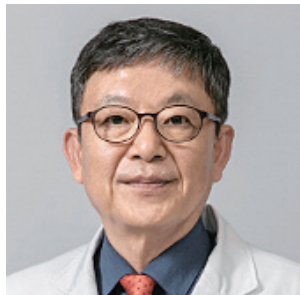
A 집안의 어른이자 내과 교수이셨던 이모부께서 “마취과가 마취, 통증, 중환자의학 등 전문분야가 다양하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공과를 선택할 1983년에는 마취과가 인기가 없었고 그때부터 약 20년간 전공의 T.O를 못 채울 정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마취통증의학과 지원이 많은 것을 보니 그분의 선견지명이 놀랍습니다. 뇌신경 마취 분야는 신경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최적의 마취와 회복을 제공하기 위한 마취관리를 하며, 마취제의 기전 및 뇌보호작용을 탐구하고 마취제와 뇌파와의 관계 규명을 통해 마취심도를 측정하는 감시장치의 개발, 운동유발전위와 체성감각유발전위와 같은 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통한 수술중 신경계 감시 등 광범위한 기초 및 임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Q 교수님의 후배인 의과대학 학생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캐나다 의사이자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한 윌리엄 오슬러 (William Osler, 1849-1919) 경은 오늘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오늘의 삶에 집중하고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사는 천재 정도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환자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중에서도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이에 더하여 환자나 환자 가족, 그리고 외과계 의사들이 노고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수술 환자의 마취와,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는 외과계의 내과 의사로서 마취와 통증 진료 외에 중환자의학, 심폐소생술, 마취약리 및 주술기 의학(periooperative medicine) 등 진료 및 연구 분야가 매우 광범위한 매력 있는 전문과목이므로 학생 시기뿐만 아니라 수련의 시절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의학과 3학년 최유빈 학생기자〉

퇴임교원 인터뷰



이홍수 교수
가정의학교실

노인 의학 분야 국내 최고 명의로 꼽히는 이홍수 교수는 1993년 이대목동병원 개원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로 발령받고 30년간 이화에 몸담아왔다. 2024년 2월로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가정의학교실 이홍수 교수를 만나, 퇴임 소감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정든 교실을 떠나게 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대목동병원이 설립된 이후로 30년 근속하고 정년퇴임을 하는 1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대목동병원에 처음 왔을 때는 하고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의사였는데,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 하고 같이 평생을 동반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께 정년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섭섭해하십니다. 또,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이대목동병원에 뿌리를 내리면서 많은 가정의학과 의사들을 양성했는데, 이 의사들이 사회로 나가 진료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뿌듯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료 여건이나 여러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기대만큼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아쉽고 후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Q 오랜 기간 본교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셨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동안 보람찼던 경험이나 아쉬웠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교육 및 수련 과정을 거쳐 훌륭한 의사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좌절하고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개개인마다 극복하여 하나의 바람직한 인격체로 자라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또, 교수로서 크게 보람찼던 일 중 하나로 2013년에 이화행림교육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학생들끼리 직접 투표를 하여 주는 상이었기 때문에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올해 퇴임 후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을까요? 퇴임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A 퇴임 후 1년 정도는 재충전할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행하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포괄적인 의료에 대하여 마무리하는 과정들이 저에게 남겨진 것 같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도와드리고 자문을 드리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과 다른 차원의

교육 형태로 도움을 드리며 다시 제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교수님께서 이대목동병원 노인의학센터를 개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노인 의학이 발전해야 하는 방향이나 후배들에게 노인 의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병원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가 따라다니는 고령의 노인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걸맞게 의료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료서비스적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쫓아 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들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게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것도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질환의 특징 중 하나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인 환자를 주로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전공 과목과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자, 교수님의 후배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결국 본인이 왜 의과대학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신념이 있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길이 분절화 되고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선택지는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왜 의사가 되려고 했으며,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아서 그런 의사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키웠으면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현실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재목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의학과 2학년 홍서영 학생기자〉



신임교원 인터뷰



송석원 교수
흉부외과학교실

송석원 교수는 2023년 6월에 개원한 이대 대동맥혈관병원의 초대병원장이자 2023년 9월 1일부터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응급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로 꼽히는 대동맥 수술의 명의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널리 알려진 송석원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흉부외과, 그 중에서도 세부전공으로 대동맥 분야를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흉부외과는 세부 전공이 성인심장, 소아심장, 폐 이렇게 크게 세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성인심장은 관상동맥질환, 판막, 대동맥 혈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의 4년 이후 전임의 2년 동안 고민 끝에 제가 대동맥분야를 선택한 것은 당시 2006~2007년도만 하더라도 대동맥 분야 수술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관상동맥이나 판막 질환에 비해 많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고, 책임감을 갖고 개척해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과 미국 휴스턴의 대동맥 수술의 최고 권위자에게 전임의 기간 동안 1달씩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계의 대가들의 수술을 보며 많은 배움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대동맥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초응급질환으로 꼽히는 대동맥혈관수술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시고, 올해 6월 이대 대동맥혈관병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대 대동맥혈관병원의 설립 취지와 향후 목표를 여쭙고자 합니다.

A 보통 대학병원에는 대동맥센터만 있는데, 대동맥혈관병원으로서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대동맥 혈관 질환 환자들은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이대 대동맥혈관병원은 흉부외과 전문의 외에도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들과 전담 수술팀, 간호팀 등 많은 인력들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동맥 수술/시술 건수가 1년에 통계적으로 30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600건 정도는 저희 팀에서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듯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대동맥 수술을 1년에 1000건 이상 집도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대동맥질환에 대한 치료를 선도해나가는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Q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의 장점으로 EXPRESS system,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래프트 수술, 가지 인조혈관을 사용한 스텐트 그래프트 시술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RESS 시스템은 Ewha Xtraordinary PREcision Safe AORTIC Surgery의 줄임말입니다.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미리 전달받아서 환자가 이송되었을 때, 바로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

정적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우리 대동맥혈관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구성원들에게 바로 응급 상황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 마곡에 위치한 이대 서울병원의 경우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이나 멀리서도 헬기로 바로 이송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의 경우 저희 6번 수술실에는 2개의 fluoroscope가 있어서 대동맥 수술이나 시술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외과와 내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하이브리드로 할지 결정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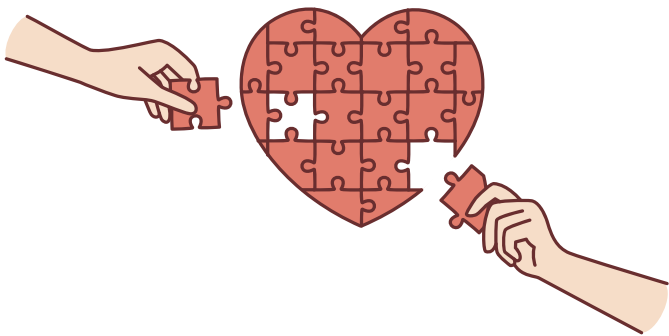
Q 최근에 의료계에서도 흉부외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비 흉부외과 전공의가 될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최근에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하여 필수 의료에 관하여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화의대 학생들이 한 학년에 76명 정도 된다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꼭 합니다. 저희 흉부외과에 오면, 잘 가르치고 키워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아주 훌륭한 흉부외과 의사로 성장하게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단 이대서울병원보다 더 예쁜 병원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관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서 어떤 의사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화의대 학생들이 이화의료원에서 수련을 통해 각자 분야의 대가가 되어서, 이화의료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에서도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의학과 3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언론에 비친 교수소식



내과학교실 태정현 교수 연구팀

'유럽소화기기능성운동학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운동과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관계 연구



이대서울병원 태정현 교수 연구팀(공동연구자: 심기남 · 최아름 교수, 전은소의학과4학년) 학생) 이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NeuroGASTRO 2023에서 임상연구분야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한국의 소화기기능성 질환 및 운동질환 연구 분야의 전 세계적인 입지와 위상을 입증할 만한 쾌거로 의미가 있다.

연구팀이 발표한 주제는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운동과 역류성식도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역류성식도염 환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신체운동과의 관계를 단층 및 종단 분석해 고강도 신체운동이 역류성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과는 달라 역류성식도염 환자의 신체운동에 대한 권고가 수정되어야 함을 설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소화기기능성질환 및 운동질환 연구분야의 대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화의료원〉

산부인과학교실 문혜성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국민 보건의료 질 향상·보건의료질서 유지 공로



산부인과학교실 문혜성 교수가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혜성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로서 학술대회를 포함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등 연수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킨 공을 높이 평가했다. 기존 연수기관들을 재정비하고 신규 연수기관들의 지정관리에 힘써 의사연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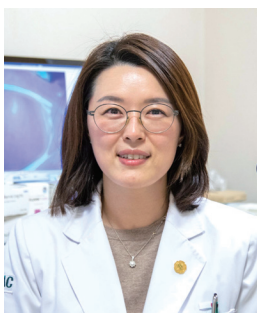
과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공헌한 공을 인정하였다. 문혜성 교수는 "기본적인 의사들의 연수교육 관리는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임상적으로 진료 및 연구활동과 학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문혜성 교수는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이자 로봇수술센터장으로 지난 해 단일교 로봇수술인 다빈치SP 수술을 최초로 1,000례를 달성하며 세계 1위 기록을 세웠다.

〈이화의료원〉

안과학교실 한경은 교수,

'태준 최다 피인용 KJO 논문 공로상' 수상

책임저자 참여 연구논문, 해외 학술지에 다수 인용 성과 인정



이대목동병원 안과 한경은 교수가 11월 23일 열린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태준 최다 피인용 KJO 논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경은 교수가 책임저자로 참여해 KJO에 기고한 '두 가지 파장간섭 빛간섭단층촬영기와 부분간섭결합계간의 일치도 분석(Agreement between Two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iometers and a Partial Coherence Interferometer)'과 '각막곡률

과 고위 수차에서 사임플로그 카메라와 파장간섭빛간섭단층촬영기간의 일치도 분석(Agreement between Scheimpflug Camera and the Swept-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Measurements in Keratometry and Higher-order Aberrations)' 연구가 해외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많이 인용돼 공로상을 받았다. 해당 공로상은 최근 2년 간 대한안과학회의 영문 발간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KJO)에 기고한 논문 중 국외 SCI와 SCIE 등재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논문의 책임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경은 교수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안과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화의료원〉

유경하 의무부총장, 동아병원경영대상 수상자 선정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혁신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유경하 의료원장이 11월 23일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주최로 열린 '제3회 동아병원경영대상 후보자 심의위원회'에서 CEO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병원회는 회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의료인으로서 근무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과 서울시병원회 고문으로 병원화와 병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큰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화의료원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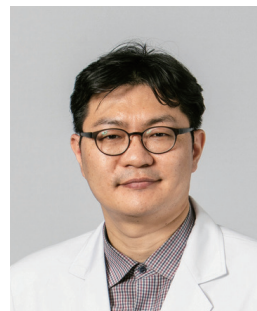
경하 의료원장은 "의미있고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병원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경하 의료원장은 2020년 취임 이후, 제 20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세번째 임명되어 2027년까지 3년 임기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화의료원〉

신경과학교실 송태진 교수, 우수연구부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 통해 우수 성과 창출



신경과학교실 송태진 교수가 11월 27일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정부 유공 포상식'에서 우수연구부분 대표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은 보건의료기술 ·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송 교수가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2023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로 선정했

다고 밝혔다. 송태진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뇌졸중 환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구음장애, 언어장애 디지털 진단, 치료기기 개발, 빅데이터-유전체 연구로 2013년 이화여자대학에 부임 후 현재까지 뇌졸중, 두통환자들을 위한 연구에 정진해왔으며 SCI급 저자 논문 106편을 발표했다.

송태진 교수는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스승님과 이화여자대학 신경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뇌졸중, 두통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

환경의학교실 김이준 교수 연구팀,

난치성 육종암 치료 실마리 찾아

NAD+ 대사 의존적인 육종암 특징에 기반한 대사 표적 발굴



▲공동 연구팀 사진(좌로부터 서주연 박사과정생, 김진홍 교수, 김이준 교수, 김현경 박사, 강현규 교수)

뚜렷한 생존율의 개선 없이 수십 년간 개선이 미진했던 육종암(연골육종)의 새로운 치료 전략에 대한 단초가 마련됐다. 이화여대 김이준 의과대학 교수, 강현규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교수, 김진홍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은 새로운 육종암의 표적 항암치료 전략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2월 21일 밝혔다.

육종암은 뼈 또는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종양과 그 주변을 수술로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인데, 잦은 재발과 반복된 치료로 많

은 육종암 환자들이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난치성 희귀암인 육종암은 연구가 활발하지 않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표적 치료법 개발도 어려워 오랫동안 환자 생존율이 개선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었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기존 육종암 치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공동연구진은 이러한 육종암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 경로와 핵심 인자를 밝혀내고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 인자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육종암 환자 몸의 'SIRT1'이라는 탈(脫)아세틸화 효소 단백질이 새로운 표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육종암은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이 어려울 때 세포 내에서 NA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라는 물질을 합성, 연구진은 이 합성 대사 작용이 활발한 환자일수록 암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음을 규명했다. 또한 NAD+를 합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NAMPT(Nicotinamide phosphoribosyltransferase) 단백질과 NAPRT(Nicotinate phosphoribosyltransferase) 단백질이 환자 생존율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육종암의 NAD+ 대사 의존성은 SIRT1 단백질 효소의 활성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방식으로 육종암 세포나 조직에 활성화된 SIRT1을 저해하면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SIRT1 저해제와 항암제를 함께 투약할 경우 기존 항암제 효과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육종암 치료 분야의 난제로 꼽혀온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육종암에 특화된 표적 항암치료 전략이 부족한 상황에서 SIRT1 효소 저해제 약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생물학적 기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항암제에 대한 낮은 반응성을 갖고 있던 육종암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외과적 수술을 통한 절제 외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치료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김이준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는 "효과적인 약물치료 방안이 한정적인 육종암 환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대사표적치료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국립암센터, 서울대 공동연구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과학 분야 학술지인 '셀 리포트 메디슨(Cell Reports Medicine)'지에 12월 21일자(현지 시각)로 게재됐으며 2024년 1월호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국가신약개발재단, 서경배과학재단, 허지영 장학재단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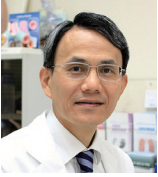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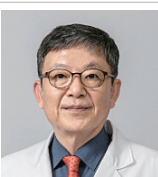
신임, 퇴임, 보직교수 명단



신임교수 명단(2023.09.01)

학 과	성 명
의학과(생화학교실)	최지수
의학과(내과학교실)	강인숙
의학과(정신건강의학교실)	김선영
의학과(외과학교실)	이윤택
의학과(정형외과학교실)	전상우
의학과(신경외과학교실)	조동영
의학과(성형외과학교실)	박진우
의학과(흉부외과학교실)	송석원
의학과(응급의학교실)	김건

퇴임교수 명단

성 명	학 과	퇴직일
 장중현	의학과 (내과학교실)	2024.02.29
 김경효	의학과 (소아학교실)	2024.02.29
 백희정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교실)	2024.02.29
 이홍수	의학과 (가정의학교실)	2024.02.29

의과대학 보직교수 명단(2024.02.01)

보 직 명	성 명	소 속
학장 / 대학원장	하은희	환경의학
부학장(교무)/의과학과장/의학과장	우소연	미생물학
부학장(학생)	박미혜	산부인과학
부학장(연구)	양현종	기생충학
부학장(교육)/의학교육센터	김승정	내과학
임상교무부장	이경은	내과학
기획부장	김관창	흉부외과학
정보관리부장/EMSC센터장	권형주	외과학
의예과장	공경애	예방의학
의과학연구소장	안영호	분자유과학
교무차장	정최경희	환경의학
교무차장	이민종	내과학
임상교무차장	김민혜	내과학
임상교무차장	정수연	이비인후과학
의학교육차장	태정현	내과학
의학교육차장	정민경	내과학
학생차장	신정아	해부학
학생차장	김수인	정신건강의학
기획차장	이정원	소아과학
기획차장	윤혜전	핵의학
연구차장	홍소희	미생물학
연구차장	양서연	재활의학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의과학연구소 실험동물실장	류정화	내과학
정보관리차장	양나래	신경외과학
정보관리차장	홍경숙	외과학
의예과 차장	박설희	진단검사의학
자체평가연구위원회총괄위원장 M융합캠퍼스추진위원장	권복규	의학교육학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1. 의과대학 발전기금(2023.07.01~2023.12.31. 기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 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신성희 (의학 68졸)	30,000,000원	임정애 (의학 73졸)	10,000,000원
강옥희 (의학 73졸)	1,000,000원	이수남 (의학 73졸)	1,000,000원
권혜숙 (의학 73졸)	1,500,000원	이숙희 (의학 73졸)	3,000,000원
김양숙 (의학 73졸)	3,000,000원	이영옥 (의학 73졸)	3,000,000원
김정례 (의학 73졸)	1,000,000원	이영희 (의학 73졸)	3,000,000원
박경임 (의학 73졸)	3,000,000원	이재숙 (의학 73졸)	5,000,000원
박현혜 (의학 73졸)	1,000,000원	조온구 (의학 73졸)	3,000,000원
배영숙 (의학 73졸)	5,000,000원	조혜완 (의학 73졸)	5,000,000원
변명현 (의학 73졸)	3,000,000원	주경빈 (의학 73졸)	3,000,000원
서현숙 (의학 73졸)	5,000,000원	주백연 (의학 73졸)	3,000,000원
이경숙 (의학 73졸)	5,000,000원	정혜선 (의학과 교수)	4,000,000원
이영희(Younghee Lee Yoon)(의학과 73)		6,241,740원	

2. 백분익일의나눔장학금(2023.07.01~2023.12.31. 기준)

의과대학 동창들이 각자 수입의 백분의 일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자는 취지로 모금한 장학금입니다. 의과대학동창회에서는 매해 연말, 200여 명의 회원들이 다같이 후원한 장학금 약 1억 2000만원을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전 달하고 있습니다.

강인숙(의학과 교수), 고은희(의학 78졸), 권계숙(의학 90졸), 권정미(의학 99졸), 김지영(의학 89졸), 김경효(의학과 교수), 김광주(의학 84졸), 김금미(의학 89졸), 김문정(의학 95졸), 김병선(의학84졸), 김보경(의학 92졸), 김성희(의학 87졸), 김수경(의학 93졸), 김연신(의학 82졸), 김영선(의학 94졸), 김영주(의학 84졸), 김예미(의학과 교수),김예진(의학 93졸), 김우선(의학 90졸), 김윤희(의학 78졸), 김정숙(의학과 퇴직교수), 김종원(의학 79졸), 김지영(의학 89졸), 김지호(의학 89졸), 김진희(의학 61졸), 김현지(의학과 96졸), 김태경(의학 84졸), 김태연(의학 05졸), 김태임(의학 74졸), 김한울(의학 08졸), 김현영(의학 78졸), 김현화(의학 81졸), 김혜옥(의학 84졸), 김홍희(의학 88졸), 김화숙(의학 71졸), 남연순(의학 89졸), 남은미(의학과 교수), 맹신숙(의학 92졸), 문경원(의학 02졸), 김태임(의학 74졸), 문인숙(의학 78졸), 민정혜(의학 93졸), 박경숙(의학 86졸), 박경화(의학 84졸), 박규희(의학 90졸), 박미연(의학 89졸),박미향(의학 90졸), 박미혜(의학과 교수), 박보영(의학과 교수), 박선옥(의학 74졸), 박설희(의학과 교수), 박성희(의학 82졸), 박승희(의학 89졸), 박연희(의학 93졸), 박원아(의학 90졸), 박은미(의학과 교수), 박은애(의학과 교수), 박재욱(의학 75졸), 박정선(의학 78졸), 박준범(의학과 교수), 박진(의학과 강사), 박혜숙(의학과 교수), 박혜영(의학과 명예교수), 박혜영(의학 89졸), 방문혜(의학 84졸), 배기선(의학 99졸), 배소희(의학 75졸), 배현애(법학과 교수), 백세연(의학 93졸), 백승희(의학 82졸), 백혜승(의학 89졸), 백희정(의학과 교수), 서동혜(의학 95졸), 서란(의학 82졸), 서시정(의전원 13), 서의정(의전원 15), 서정완(의학과 교수), 서정은(의학 09졸), 서한나(의학 10졸), 성시열(의학 81졸), 손현주(의학 84졸), 손희정(의학 89졸), 송선희(의학 77졸), 송현주(의학 00졸), 신수아(의학 93졸), 신정아(의학과 교수), 신혜원(의학 78졸), 신화자(의학 78졸), 심소연(의학과 교수), 심현(의학 80졸), 안영호(의학과 교수), 안혜선

(의학 84졸), 양나래(의학과 교수), 양미혜(의학 82졸), 오양재(의학 65졸), 오혜숙(의학 78졸), 우명숙(의학 71졸), 우복희(의학과 명예교수), 우소연(의학과 교수), 우재희(의학과 교수), 원혜성(의학 90졸), 유경아(의학 97졸), 유경하(의학과 교수), 유금혜(의학 00졸), 유동원(의학 84졸), 유박영(의학 74졸), 유신애(의학 69졸), 유채선(의학 84졸), 윤명인(의학 78졸), 윤석원(의학 76졸), 윤소윤(의학 07졸), 윤수진(의학 90졸), 윤혜원(의학 80졸), 이경숙(의학 82졸), 이국희(의학 89졸), 이귀용(의학과 명예교수), 이남경(의학 89졸), 이남희(의학 79졸), 이령애(의학과 교수), 이명희(의학 90졸), 이미애(의학과 교수), 이순남(의학과 명예교수), 이순재(의학 75졸), 이승희(의학 84졸), 이연주(의학 90졸), 이영은(의학 90졸), 이예경(의학 82졸), 이용주(의학 77졸), 이윤하(의학 91졸), 이은엽(의학 75졸), 이재욱(의학 79졸), 이재욱(의학 76졸), 이재현(의학 80졸), 이정엽(의학 82졸), 이정원(의학과 교수), 이종민(의학 80졸), 이지희(의학과 교수), 이진숙(의학 78졸), 이항운(의학과 교수), 이현주(의학과 박사 10졸), 이혜영(의학 77졸), 이훈주(의학 07졸), 임석아(의학 91졸), 임선영(의학 82졸), 임원정(의학과 교수), 장은경(의학 90졸), 장혜숙(의학 75졸), 전영미(의학 82졸), 전해진(의학과 강사), 정미경(의학 84졸), 정민경(의학과 교수), 정성애(의학과 교수), 정성철(의학과 교수), 정연정(의학 90졸), 정윤희(의학 74졸), 정은숙(의학 84졸), 정은주(의학 90졸), 정인숙(의학 77졸), 정주혜(의학 97졸), 정지아(의학 93졸), 정혜선(의학과 교수), 정호인(의학 90졸), 조기영(의학과 강사), 조지희(의학 88졸), 조혜경(의학 04졸), 주문희(의학 70졸), 주미련(의학 74졸), 주재분(의학 77졸), 차순자(의학 60졸), 채설애(의학 96졸), 최경희(의학과 교수), 최옥경(의학 90졸), 최원주(의학 79졸), 최윤희(의학과 교수), 최익숙(의학 77졸), 최지하(의학과 교수), 최현주(의학 87졸), 최혜영(의학과 교수), 피상순(의학 84졸), 하은희(의학과 교수), 한경원(의학 84졸), 한기정(의학 89졸), 한승혜(의학 96졸), 한지윤(의학 75졸), 허금희(의학 89졸), 허양임(의학 05졸), 허정원(의학과 교수), 황은미(의학 01졸)

3.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23.07.01~2023.12.31. 기준)

기금 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 기금	의과대학 교육인프라구축기금	권복규(의학과 교수)	1,000,000원
	이화의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최경희(의학과 88졸)	2,000,000원
	정형외과학교실기금	이정준	12,000,000원
장학 기금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의학과 교수)	14,000,000원
	연희장학금	주문희(의학70졸)	12,000,000원
	의과대학대학원장학금	안소현 (의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200,000원
		우소연(의학과 교수)	10,000,000원
		임선영(의학82졸)	6,000,000원
		최현주(의학87졸)	6,000,000원
		피상순(의학84졸)	12,000,000원
		하은희(의학과 교수)	5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임선영) 장학금	임선영(의학82졸)	1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조종남) 장학금	조종남(의학75졸)	1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피상순) 장학금	피상순(의학84졸)	1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한영자) 장학금	한영자(의학62졸)	3,000,000원
	하은희장학금	류시하	6,000,000원
		하은희(의학과 교수)	5,000,000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안내

여러분의 후원은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세계적인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기틀이 될 '연구기금'과 우수 여성 의과학자 및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줄 '장학기금', 첨단 의학교육환경을 위한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위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선물 및 카드 증정
- 모바일 뉴스레터/생일축하카드 발송
- 기부자 명예의 전당(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
- 이화소식/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이화여대 의대 발전기금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닥터로빈(5%), 교보문고(5%), 구내안경점(10~20%), 두레주르(10%), 카페 블루팻(5%)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2927,3969 **Fax** (02)392-3473 **Homepage** <http://giving.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6986-6013, 601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권형주(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양나래(정보관리차장), 홍경숙(정보관리차장), 김지현(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권나현(의학과 3학년), 최유빈(의학과 3학년), 박서영(의학과 3학년), 홍서영(의예과 2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식지를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Tel:** 02.6986.6007

